

<1월 16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현공

♫ 불자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법문 - <관음경>,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 음성공양 - 신도회 합창단
- 정근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1. 23(토)	관음경	김호성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 30(토)		
2. 6(토)	휴 회 (개인정진)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B259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법학관 B260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 공지합니다! 교리반, 漢詩반 강의실 변경되었습니다. 방학기간(1월 9일~2월 27일)중 법학관으로 변경, 3월부터는 기존 명진관 강의실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丙申年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崇政殿 현판 전시 안내

정각원 내부에 모셔진 승정전 현판이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희궁의 흩어진 부재들의 흔적 찾기를 통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 기 간 ~ 2016년 3월 13일(일)
- * 장 소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 문 의 02)724-0274~6

보시동참

1월 11일 불전 공양 1000원

₩1,765,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성타스님, 보광스님, 해주스님, 진우스님, 김문자, 김봉주, 구리시효자봉비어, 권복숙, 권혁채, 김기현, 김성희, 김시현, 김원욱, 김종우, 김형근,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도운수, 박선재, 박성진, 박세협, 박영순, 박영태, 박해창, 백광호, 백민지, 사경호, 안대준, 윤호문, 이기형, 이동하, 이보라, 이봉자, 이상환, 이수준, 이영철, 이인주, 이지혜, 정보현, 주호빈, 주호성, 천대적심, 최은진, 한상훈, 한영욱, 한현구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1000원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1000원

₩1,289,200원

(법사비, 토요일 법회 녹화영상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1000원 인등공양 1000원

강봉식, 강봉준, 강세욱, 강지원, 강효원, 고은선, 구남이, 김도운, 김도현, 김성순, 김수금, 김옥분, 김원규, 김장우, 金廷衍, 김태훈, 김형섭, 김형훈, 김환기, 김효정, 박종구, 박창희, 서승범, 송예지, 오충현, 윤선미, 윤승태, 정연정, 정은숙, 주호빈, 주호성, 최광자, 최순금, 최정우, 최정훈, 최희연, 황금철, 황금철, 황수경, 효자손만두

1000원 공양 보시 1000원

※ 불단 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땀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60(2016)년 1월 16일

제317호(週刊)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유마경]

고려불화의 대표작 <수월관음도>



고려후기, 110x57.7cm, 비단바탕에 채색, 일본 談山神社 소장

◎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화려한 금니와 고운 색채가 놀라울 정도로 잘 살아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또한 『화엄경』 「입법계품」과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한 화면에 그려 경전의 융합을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떠난 「입법계품」의 내용이며, 우측 하단에는 「관음보살보문품」에 등장하는 제난구제諸難救濟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각

<관음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김호성

「관세음보살」 탈고 소감

무슨 가피 내리시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이름
부르시나
오, 관음이어
관세음보살이어

(2010. 8. 11)

극락에서 온 메일

그래, 맞는 말이다
나는 없다
이 세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자네 선생님도
없다
그렇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
없는 나
없다 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부정할 자네들 있다면야
자네들은 있고 나는 없으며
지구는 있고 극락은 없다
하겠으나
나는 없다
이 세계는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자네야 없지만 나는 있으며
이 세계는 없지만 극락은 있다

(2009. 12. 4)

그림자극

중국 운남(雲南)성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농촌 마을에서 그림자극을 보았습니다. 흰 장막 뒤에, 인형을 조종하는 선생님이 숨어 있습니다. 빛을 쏘아대면 인형들 몸짓이 흰 장막 위에 비추이고, 숨어있는 사부님 천의 목소리로 장단을 맞춥니다. 두 손과 한 입이 바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서 영원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림자극 다 본 사람들, 삼삼오오 흠뻑이며 영 불만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구동성입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림자가 하는 말은 진리일 수 없다, 거부합니다. 오직 인간이 말할 때만 그 말은 진실이라 항변합니다.

두 팔에 힘 빠지고, 목조차 쉬어버린 그림자의 스승을 만나 보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낮에 초등학교 강의실을 빌어서, 板書를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칭송하고 찬탄조차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서 영원한 나를 찾을 수 없다.”

무상하고, 괴롭고, 영원한 내가 없다는 진리를 말하는 데 그림자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말하면 어떠냐. 아니, 우리 모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사람보다는 그림자가 하는 것이 더 제격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다, 외롭다 울었습니다. (2009. 12. 3)

드라마-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法

우리 회사 옥상이나 휴게실이나
삼삼오오
직원들은 자판기 커피를 손에 든 채
엇저녁의 연속극 이야기다
올려보지 말아야 할 꿈 이야기다

바로 이곳이다
윤희와 수찬이 커피를 들고 앉아
친구의 아픔과
친구의 슬픔과
친구의 어리석음을
다독여 녹이던 곳이 여기다
우리 회사의 옥상이나
휴게실이다

情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발목을 다쳐서 ~ ”
윤희는 재벌 2세 오너인 팀장의 second 쫓이 되기로 하고
친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발목을 다쳐서 ~ ”
기대 오는 윤희의 머리가 그리 무겁지만은 않다
수찬은
그렇게 전직 준비 전과자 친구다

아침 햇살이 우리 샐러리맨의 부지런을 재촉한 뒤
오래도록
나는 어젯밤의 드라마에 취해 있다
왜 부장의 부하는 부장을 의심할까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환상, 환영, 허깨비, 마야(maya), 그리고 꿈 속에서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본다
휴게실에 가 본다

윤희는 어느 새 배두나로 돌아와 무슨 광학기기 디지털 광고의 모델이 되고

밤낮으로 女福이 두 배나 많은 김승우는 또 무슨 영화라도 찍고 있겠으나

아무래도
북아현동이나 고덕동이나

그 어디를 가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이다

“저 웬수~ ” 윤희 엄마는 목을 따고

의처증 남편의 예쁜 아내는 맨발로 쫓겨나 골목을 달리고

곤이는 남도 사투리로 귀여울 것이다

신제품 판매전략회의는 도무지 實感이 나지 않고

나는 다시 현실의 드라마 속으로

브라운관 커튼을 열어젖히고

들어와 본다

완벽한 이웃이 된다

(2007. 9. 7)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백석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자 방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구신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뜨막에 조양님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령에 데석님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병 아래 털능구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나는 겨우 대문을 빠져나 바깥으로 나와서
 발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망구신
 나는 고만 디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보니
 아아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가나 묻어 다니는 달걀구신
 마을은 온데간데 귀신이 돼서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신세대(新世代)』 3권 3호, 1948. 5.

백석의 시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를 읽다

나는 이 도시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도시는 온통 귀신이 하나도 없어서
 방안, 화장실, 사무실, 학교, 레스토랑, 방송국, 교회, 절, 산, 들
 심지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조차
 이제 시멘트로 발라져 버려서, 귀신은 다 질식사
 해버리고 없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희망은 없다. 너무나도 집요한 과학주의자, 자본주의자,
 통일주의자, 미신타파운동가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구신타파운동에다가 구신통일운동을 펼쳐대기
 때문이다. 이제 성주님, 디운구신, 조양님, 데석님, 굴대장군,
 털능구신, 수문장, 연자당구신, 달걀구신 등
 팔백만이나 3억 3천이나 되는 구신들을 다 물리치려는
 운동 덕분에 구신들은 이제, 겨우 도시 밖의 구신들만
 기진맥진하고 있다. 3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역류(逆流)를 뛰어오르는 잉어같은 구신들은
 이제 없다. 있다손 치더라도 흐느적 흐느적 다 죽어가는
 구신들이 몇 있을 뿐이다. 본래 구신이었던 나무들이
 구름들이 비들이 모래들이 바위들이 다 손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는 구신이 아니다.
 나는 고상한 님이다"라고 강변하고 항의하고 있다.
 구신들이 탈(脫)구신의 행렬로 편입되기 시작한 지
 하마 한 세기, 두 세기는 넘었다, 시대정신 탓인가,
 나도 점점 본래의 구신얼굴을 잃어가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2012. 12. 6)



묘코닌(妙好人) 전설-오소노씨(お園さん)의 고백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 밖에 그 무엇도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 속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아미타불
 다만 나무아미타불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로서도 승복합니다
 저의 나무아미타불은 성의가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저 되뇌일 뿐
 도무지 간절함이 없습니다
 口頭禪
 空念佛
 알맹이 없이, 중심도 없이
 虛하기 짝이 없는 나무아미타불
 空하기 짝이 없는 나무아미타불
 저의 염불 소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염원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2011. 1. 26. 스리랑카 캔디)

*묘코닌:일본 정토진종의 재가신자로서, 내세에 극락왕생
 하려는 독실한 믿음으로 현세를 살아간 사람들을 일컫는 말.
 *오소노씨:에도시대의 묘코닌.

보타락가산-보타행(補陀行)보살님께

저 푸르른 바다 끝
 배가 없다면
 해엄을 치더라도 애써 가보면
 그곳에는
 관음이 계시리라.

혹시라도
 지구가 둥글지 않아서
 저 바다 끝에서
 급전직하(急轉直下)
 깊이 모를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다.

그래, 망설임이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내 믿을 곳은
 관음 밖에 없어라. 가령
 속아서
 백번 천 번 죽는다 한들
 나는 가리라

저 푸르른 바다 끝
 관음淨土에
 내 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바다 위로
 목 빼고 기다리시는
 내 님이 있으리니.

가리라.
 나는 가리라.

(2015. 4. 3)